

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 언약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나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회는 어린 아가들부터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소란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앞좌석에 앉아주시면, 좀 더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리실 수 있습니다.

2. 3월은 <전도>하는 달입니다.

- 각자 기도하며 전도대상자들을 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전도합니다

3. 기타 안내

- ① 이번주부터 **수요일예배 시간을 저녁 7시30분으로 앞당깁니다**
- ② 지난주간부터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주중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1)목요일 오전10시30분-기혼 자매들 2)금요일 저녁8시-청년들
- ③ 이번 토요일부터 4주에 걸쳐 <마가복음 하루종일 성경공부>를 매주 토요일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④ 2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 ⑤ 2016년 상반기 예배담당표가 나왔습니다.
- ⑥ 오늘 오후예배 후에는 청년부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 ⑦ 올해부터 고등학교 학생2명 등록금을 후원합니다.
- ⑧ 아파트 관리실에 제출할 차량번호를 오늘 다시 갱신합니다.
- ⑨ 이사: 백상준,김정은(백주현) 사당동으로
- ⑩ 2014년 성탄절 바자회 기금을 헌금했던 네팔교회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 온라인 현금**
 ■ 일반헌금 : 국민은행 387-21-0060-940 (예금주/조호진)
 신한은행 308-12-390429 (예금주/조호진)
 우리은행 1005-901-708982 (예금주/언약교회)
 ■ 예배당매입헌금 : 국민은행 830502-04-176405 (예금주/조호진)

	이번 주(3/6)	다음 주(3/13)
봉사 안내	설거지	박의준, 김동현, 이철영
	오후통독	이광현(고린도전서 7-8장)
		함영훈, 이병로, 한국인
		이 준(고린도전서 9-10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COVENANT COMMUNITY CHURCH

섬기는이 목사-조호진, 임종훈 / 전도사-전진영
서울 관악구 인현동 181-6 현대아파트상가 (3층)
☎ 02-875-7760 http://www.unyak.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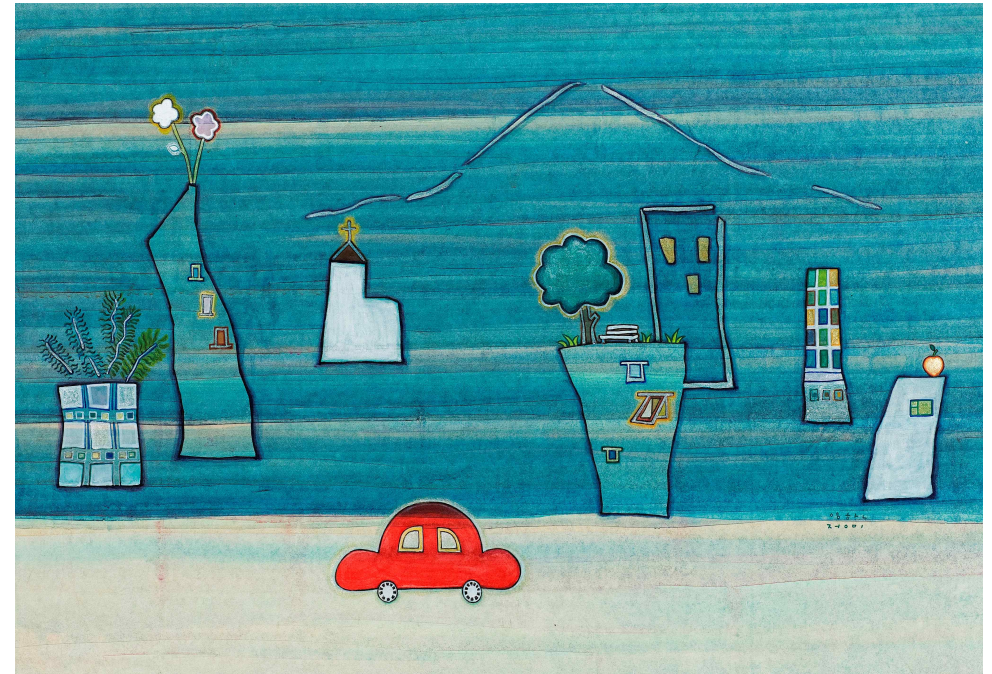
말씀이 깊고 풍성한 교회

온 성도가 믿음과 섬김으로 "제자삼는 제자"가 되는 교회

http://www.unyak.org

제18-10호

2016년 3월 6일



(한정미 작 순례길-도시)

주일	유 . 초등부	오후 1시30분
	중 . 고등부	오전9시30분 //오후1시3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 오후1시30분
주중	새벽 예배	오전 5시30분 (월~금)
	수요 예배	저녁 7시30분

주일 예배 순서

인도 : 조호진 목사

-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일어서서
- 사도신경 일어서서
- 회개와 감사 기도 일어서서
- 찬양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다함께
- 대표기도 정순규 집사
- 성경 봉독 이사야 17장 1-14절 말씀 천명재 형제
- 말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조호진 목사
- 결단의 기도 다함께
- 성도의 교제 다함께
- 광고 인도자
-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일어서서
- 축도 조호진 목사

-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 ▣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 및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위원		다음주(3/13)	2주 후(3/20)
	대표 기도	윤충식 형제	한국인 형제
	성경 봉독	이병로 집사	박준석 형제

성경 본문 (개역개정판-이사야 17장 1-14절 말씀)

Ⅲ.북(北)쪽: 다메섹(17장)

A. 다메섹에 관한 경고

이사야 17장 1-3절 말씀

다메섹에 관한 경고

0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심판선포

-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 0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 0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B. 야곱에 관한 선포 (이사야 17장 4-11절 말씀)

그 날① 쇠하고 파리하리니

04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05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06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② 하나님을 바라보다

0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뵈겠고

08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③ 황폐

09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11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C. 많은 민족과 열방에 관한 경고

이사야 17장 12-14절 말씀

심판대상-열방

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꾸짖으시는 하나님

13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열방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

14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